



## 발간자료

• **방산(Overweight):** 이슈: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크로아티아에 천무 18포대(5.6억달러) 수주(본계약 전) — 글로벌 장거리 유도탄 쇼티지가 배경, 유사 쇼티지 수혜가 지대공·155mm 탄으로 확산되며 천궁·L-SAM·MCS로 이어질 전망(LIG D&A·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혜). 쇼티지 현황: 美 패트리엇(PAC-3) 재고 65% 이상, 사드 80% 소진 — 폴란드·노르웨이·에스토니아 등 천무 유저클럽 확대 중(현재 7개국, K9의 12+1개국처럼 확대 기대). 수주: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올해만 약 9조원 육박 수주, 현대로템·한국항공우주·LIG D&A도 대형 파이프라인 대기 중. 밸류에이션: 지상방산 체계업체 2027년 PER 15배 안팎으로 저평가 구간 — 비중확대 권고, 선호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(TP 246만원)·LIG D&A(TP 98만원)

(조선/기계/방산 최광식)

• **이차전지(Overweight):** 수출: 전일 미국 교통부(DOT)에서 Ford에 보낸 공개 서한으로 CATL 기술 도입 제한 가능성 확대. 수혜가 예상되는 당사 커버리지 중 3개 업체에 대한 적정주가를 상향. LG에너지솔루션은 62만원, 삼성SDI는 90만원, 엘앤에프 22만원으로 상향. 한국 셀/소재 업체의 LFP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한 기대를 넘어, 수주와 Capa로 가치산정이 가능한 단계에 진입

(자동차/이차전지 유지웅)

• **은행(Overweight):** 여신: 가계대출 증가폭 축소, 기업대출 증가폭 확대. 여신 증감폭: 가계대출 +3.4조원(vs. 26년 7월 +5.5조원), 기업대출 +9.7조원(vs. 26년 7월 +7.7조원). 신용대출 포함 기타대출 감소 전환이 주된 이유. 집단대출 외 주택 거래량 변동 가능성도 고려 필요. 수신: 전월비 변동 거의 없음. 수시입출식예금 감소와 정기예금 증가 지속. 수신 증감폭: +0.1조원(vs. 26년 7월 -30.0조원)

(금융 김지원)

## Compliance Notice

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·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.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. 본 자료는 '나눔스퀘어'와 '아리따 글꼴'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## 투자등급 비율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BUY : 93.5% | HOLD : 6.5% | SELL : 0.0%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
## 투자등급 관련사항

아래 종목투자 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

- BUY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+15% 이상
- HOLD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이상 ~ +15% 미만
- SELL: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-15% 미만

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

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 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,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과 다를 수 있음

- Ov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Neutral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- Underweight: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

주)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